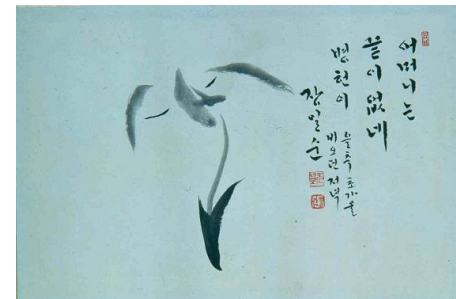


무위당 장일순의 미학과 사상 2부
무위당 장일순의 큰 철학
생명사상

최종덕(독립학자, philonatu.com)



하나의 풀이었으면
줄겼네 차라리
밟아도 좋고
짓밟아도 소리
없이 그 속에
그속에 어찌면
그렇게

장일순의 서(書), 화(畵) 스승,

차강(此江) 박기정(朴基正)(1874~1949)

장일순은 원주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할아버지의 친구이고 독립운동가인 차강(此江) 박기정(朴基正)(1874~1949) 선생에게서 글과 글씨를 배웠다. 서예와 그림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차강은 난을 칠 때 땅 위에 뿌리를 드러낸 노근란(露根蘭)을 주로 그렸는데, 이는 일제식민지 조선 땅에는 난초를 심지 않겠다는 차강의 강인한 지조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유정은 2016, 차강 박기정의 선비정신과 예술정신 연구 유학연구 (ISSN : 1229-5035) Vol.35 No.35. 185 ~ 217쪽

“박기정은 당대 영의정 彝齋 權敦仁(1793~1859)의 문인으로부터 수학한 후 위정척사의 영수였던 유인석(1842~1915) 휘하에서 의병활동에 가담하여 일본에 저항하였다.

박기정의 서화 세계는 사심이 없는 경지에서 붓을 잡아야 한다는 ‘用筆在心, 心正則筆正’ (唐, 안진경(顔眞卿)의 후계자 유공권(柳公權)) 과 초월의 자유를 추구하는 ‘秋水精神’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청강 장일순, 화강 박영기에게 전수되어 현대화단까지 그의 화맥이 계승되었다.”

정은주 2018, 차강 박기정의 《활정십경백납도병》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藏書閣 제39집 2018.0486 - 120(35 pages)

조선에 미친 양명학의 영향에 관한 해석

**** 태주학파 특히 이지의 양명학이 조선에 영향을 주었다.**

(유명중, 한국의 양명학. 동화출판공사, 1983)

****이런 해석을 정인보, 박은식 그리고 최근 금장태도 따르고 있다.** 금장태 2007, "근대적 변혁기의 한국양명학", 종교학연구(2007)

**** 예를 들어 허균(許筠, 1569-1618)의 홍길동전은 이지의 직접 영향을 받았다.** (허균, 한정록(1617)- 이가원, 유교반도 허균, 2000).

****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양반전과 허생전도 이지의 하심은론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장태 2007)

독립운동과 민족자강운동으로 이어진 조선 양명학

- 정제도(1649-1736) 하곡학파 소위 우파 양명학 (양명학과 율곡의 결합 - 심즉리)
- 강화학파, 이건방 : 김택영에서 이건창(이건창은 황현과 친교)
- 박은식(1859-1925)의 성호학파: 47세 1905년 양명학 기반 대동교 조직(1909)
- 정인보(1893-1950)의 강화학파 계승, 자강운동, 양명학연론(1933)
- 김원극(1871-1927)의 양명학 = 서양학문을 해소하는 유교의 변신이 필요. - 심즉리 + 치양지 + 지행합일 (김원극 1910, "왕양명학론", 서북학회월보 1(19))

근대조선의 생명운동의 기저: 민족독립과 생명평등

1. 민권 민중운동
2. 민족자강운동
3. 대중계몽운동
4. 새로움과 평등의 열린 운동

(금장태, 한국양명학의 쟁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 생명사상이 갈구했던 자유

(한철연, 처음 읽는 한국 현대철학 : 동학에서 함석헌까지, 동녘, 2015)

개체의 주체화	인권 평등	전성론	경제적 자립	실천과 경제적 독립
동학/ 양명학	동학/ 대종교/ 양명학	양명학/ 대종교/ 동학	대종교/ 양명학	양명학/ 사회적 무정부주의

세기 말 초 항일운동과 독립사상의 사상적 뿌리

동학	대종교	양명학계통	결합사상
최제우/최시형/ 이돈화/김기전/ 김구(동학+ 양 명학계열)	나철/전병훈/이 기/서일	신채호/이기영/ 이건창/박은식/ 이회영/김원봉	함석헌/신남철/ 박치우/한용운
계급타파/만민 평등/주체자각	인권/우주평등/ 자존성/저항/ 경제자립	주체적 자유/현존적 삶/지행합일/ 경제자립	인권/실천적 사회 의식, 진보역사
항일/ 반계급운동	무장항일/양명 학계열과 연계	문화적 독립운동/ 아나키즘+ 세계주의 /신흥무관학교설립	실천적아나키즘/ 이념운동/범신론 최종덕◎

생명사상의 시초 : 동학사상

최제우(崔濟愚, [1824-1864](#)) 수운(水雲)
[동학](#)의 창시자 1860

‘인내천’(人乃天)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권평등](#)사상

동학 / 천도교

- 최제우 1824-1864
- 최시형 1827-1898 35세 입교 37세 교조
- 최시형의 사인여천事人如天
- 동학농민혁명 1894
- 손병희 1861-1922, 천도교 선포로 동학 내 친일세력 결별 1905 - 독립운동

동학의 평등사상

- “사람이 한울이니 사람을 한울처럼 섬기라”
- 자기 안의 한울님
- 기존의 성리학에서 주체가 군자이거나 군주이었지만, 이제 백성 한 사람마다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무계급의 철학을 말한다.
- 최제우(1824-1864) 단박에 깨닫다.
-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 내 안의 시천주侍天主

최시형(崔時亨, 1827년 ~ 1898년)

동학 제2대 교주

해월(海月)

우(愚)·묵(默)·눌(訥)을 강조하여 새 세상이 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니 인위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무저항의 사상을 강조했다.

해월의 생명사상

- 남을 가르치지 않는다
- 훈계하지 않는다.
- 잘난 체 하면 내가 바보다
-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모든 이는 평등하다.
- 하늘은 내 안에 있다. - 인내천 사상
- 책 이상으로 타인의 인생에서 항상 배운다.
-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으며 자연적이고 나의 동기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 폭력으로는 상대를 강제도 못하고 추종도 시킬 수 없다.



22세 이소사 장흥전투(1895)
조연희 화백의 상상도

15세 김유선, 장흥군 대덕면 연지리

15세 박백환(朴白煥), 완도군 약산
면 해동리(당시 장흥군)

16세 윤성도, 1984년 회령진성 무
혈입성부터 장흥 강진전투

소년 지휘관도 있었는데,

13세 최동린 1894년 12월 장흥군
남문밖 석대 혈전

(당시 일본신문 기사내용: “어린동
학. 동도(東徒) 중에는 동자(童子)
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崔라고 했
다. 동학 신도들은 그를 칭하여 선
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최
동자(崔童子)라 하여 그 순진무구
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우롱하였
다. 동학도의 인민을 선동하는 것
은 매번 이와 같다.”)

방정환(1899-1931)

- 동학에 가입 1916
- 어린이 라는 말 처음 사용
- 색동회 -어린이날의 전신
- 유학시절 1920-23년 김기전(양명학, 동학)과 함께 어린이 운동
- 동학의 인내천 사상 흡수
- 천도교 3대 교주 의암 손병희의 셋째 딸인 손용화 여사와 결혼 1918

일상생활태도로 본 양명학, 동학과 방정환의 어린이 대하기

- 어린이를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 훈계하지 않는다.
- 어린이 앞에서 잘난 체 하면 어른이 바보다
-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인격적으로 동등함을 매번의 행동 전에 되새긴다.
-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자식)를 때리지 않는다.
-“어린이도 한울이니 아이를 때지리 마라”
- 어린이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아이에게는 동몽접장, 아녀자에게는 부인접장이라고 호칭했다.
-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으며 자연적이고 나의 동기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 폭력으로는 상대를 강제도 못하고 추종도 시킬 수 없다.

방정환의 미래를 보는 눈

- 아동문학가이며 민족운동가인 방정환은 미래를 보는 눈으로 어린이를 주체적 인격으로 볼 것을 계몽했다.
- 아이를 한울님으로 대해야 한다는 최시형의 경전 <해월신사법설>에 영향받아 구습과 적폐를 거부하며 인권과 인간존중 사상을 펼쳤다. 방정환이 <신청년> 창간을 위해 한용운을 찾아갔다.
- 방정환의 추모비에 새겨지길, "어린이를 즐겁게 하고 항상 칭찬해주고 몸을 잘 살피주고 책을 늘 읽히도록 해주라고 했다. 희망을 위해 내이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 최초의 영화잡지 <녹성> 창간, 색동회 잔물결을 일으키면 나중에 큰 물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1930년 창간한 <어린이> 발생부수는 10만이었다. 당시 서울인구 30만. 미래를 보는 눈으로 어린이를 대하자

단군교/대종교의 저항

- 나철(1863-1916)
- 단군 부흥
- 일제탄압에 정면으로 맞선 국권회복운동
- 천지인, 혹은 한인-한웅-한검이라는 3의 구성체는 단순히 절대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한 단순 종교적 특성을 넘어서서, 인간이 살면서 겪는 “느끼고 숨 쉬고 부딪치는” 세 가지 길을 가리켜 ‘세 길’이라고 부른다고 하며, 인간은 이 세 길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다.
- 개천절 (1904년) 효시

대종교

- 나철 1863-1916 ; 을사늑약 이후 을사오적 암살 시도 실패, 국권회복운동 주도
- 서일 1881-1921
- 윤세복 1881-1960

단군교에서 대종교로

- 일제탄압
- 일제는 단군교를 “종교로 가장한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
- 1921 자유시참변
- 1942 임오교변

대종교, 세 길을 가는 법

독아獨我 불교

위아爲我 도교

무아無我 유교

** 천도교의 향아向我 참조

대종교, 양명학, 동학의 트라이앵글,

- 이동녕과 이회영(1867-1932)의 신흥무관학교, 1911 개교
- 서일, 김좌진, 홍범도, 김규식, 이범석의 독립운동

대종교의 국어 운동

- 주시경의 한글
- 김두봉의 <조선말본>
- 김두봉의 개천절 <독립신문> 1922

양명학의 전성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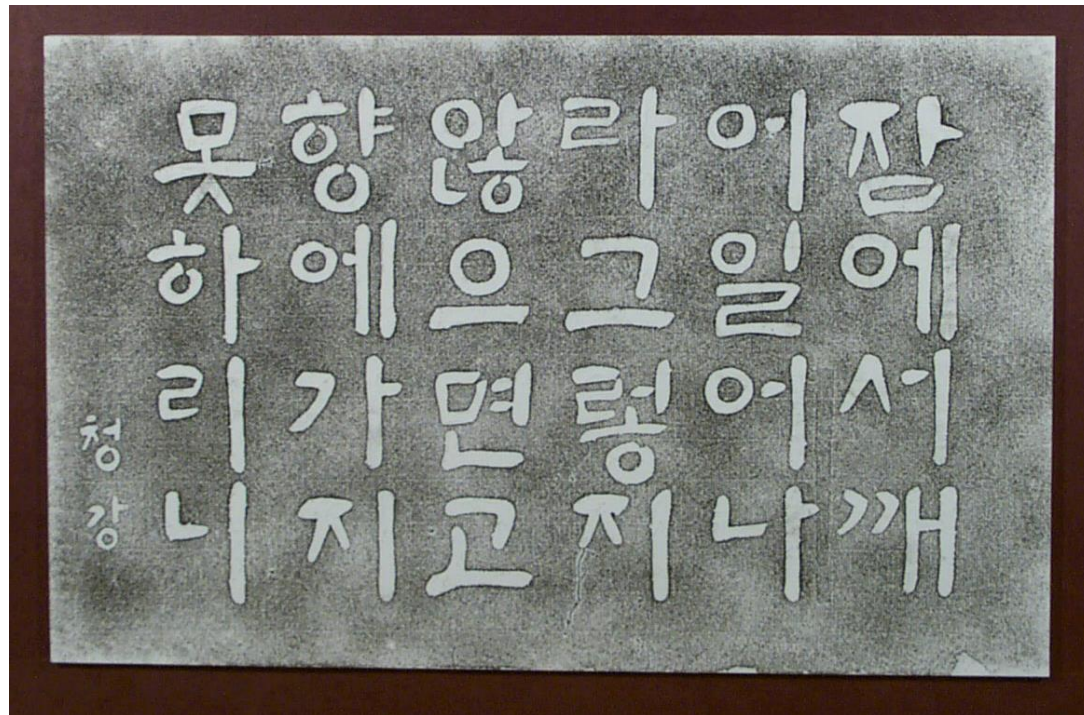
- 황성신문을 창간한 박은식(1859-1925)
- 양지의 사상: 양지는 주자학의 주지주의적 도덕론에서 벗어나 있으며, 맹자가 말한 측은심의 기반
- 양지는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닌 내재된 도덕적 정감
- 공정함과 시비선악의 기준- 성선함의 기초

박은식의 양지

- 자연을 밝게 통찰하는 앎,
- 순일하고 거짓없는 앎,
- 끊임없이 유행하며 쉬지 않는 앎,
- 두루 감응하며 막힘이 없는 앎,
-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과 차이가 없는 앎,
- 우주와 인간을 합일하는 앎

신채호의 민족 개념

- 전제적 국가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한다.
- 방어적 민족주의
- 아나키즘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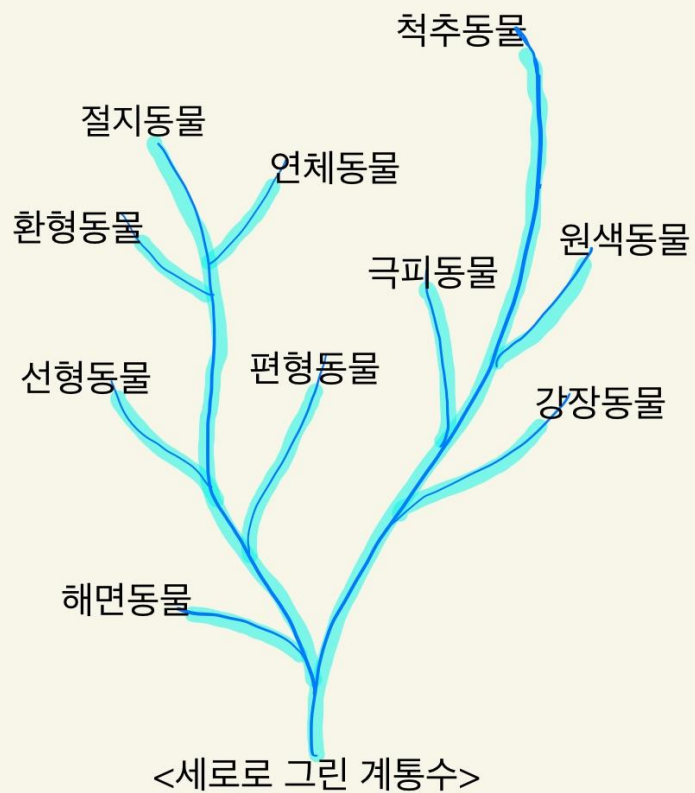


해월 추모비 제막식-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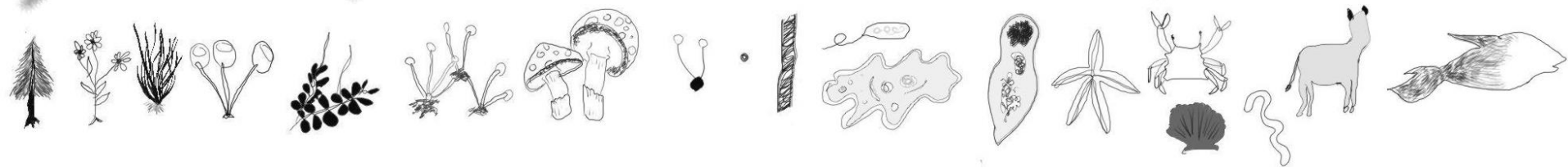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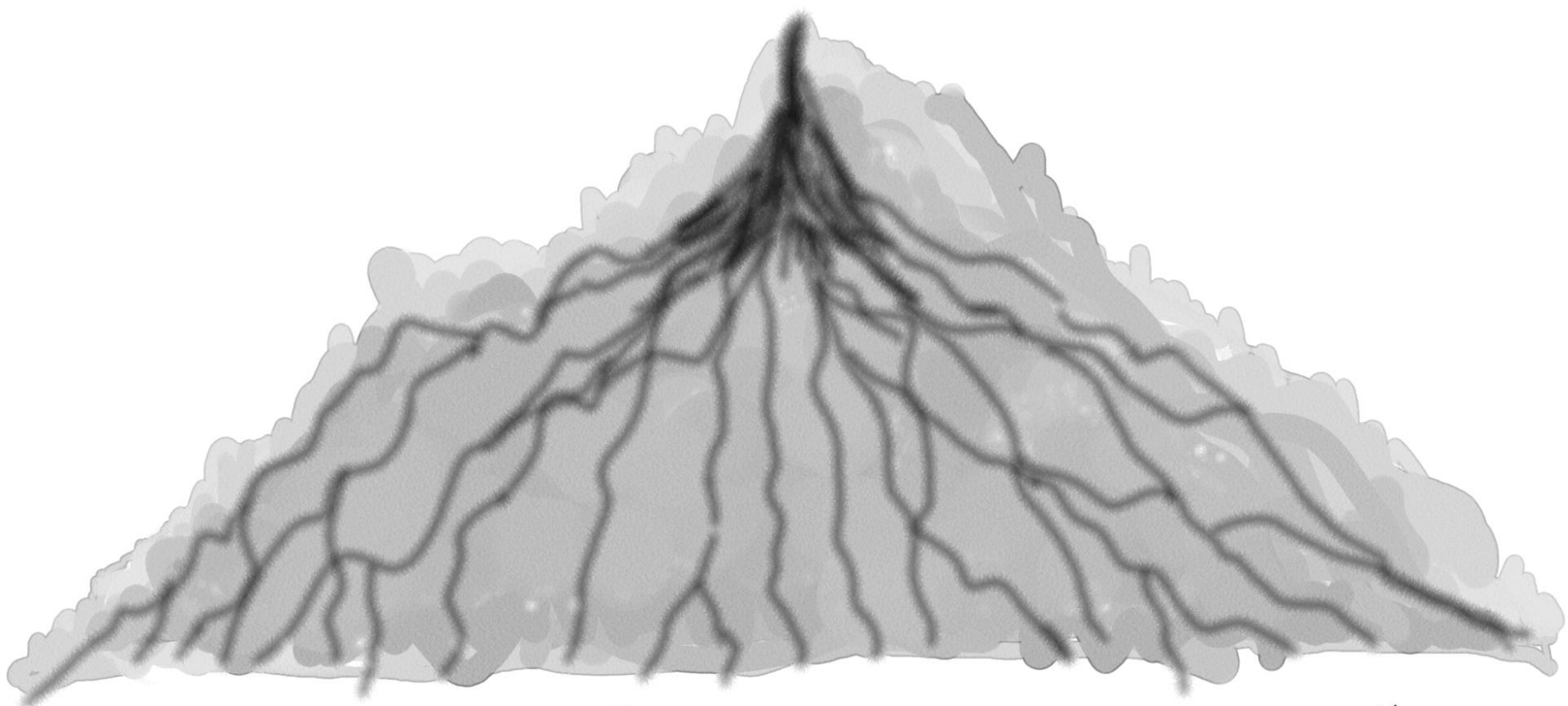
진화생물학으로 본 생명의 과학철학

존재와 과정, 다양성, 공통조상과 평등

- 30억년 박테리아와 동일한 공통조상
- 27억년 포유류
- 200만 년 호미니드의
- 15만 년 이상의 구석기
- 4~5만년 아프리카에서 전지구로 이주
- 1.2만년의 농경기(신석기 시작)-농사, 가축, 마을, 전쟁
- 0.6만년, 중앙권력의 시작- 문자, 역사, 신, 형이상학, 계몽
- 존재권력의 최고를 자랑하는 인간도 다른 생명과 공통조상
- 다양한 인종도 호모사피언스나 네안데르탈인의 공통후손
- 아프리카사람, 유럽사람, 아메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거의 같은 본성-평등본성론



<편견을 불러올 수 있는 모델>



생명의 생물학적 특징

개체보전성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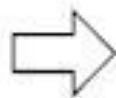
대사

반응

종존속성
특징

증식

진화



생명의 철학적 의미

특이성

개체마다의 차이는 우열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특이성이다.

상관성

항상 운동하며 에너지를 교환한다.

순환성

개체독자성이 있지만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상호의존적이다.

역사성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현존재는 30억년 생명사의 누적된 산물이다.

@philonatu

생물학적 휴머니즘

- 인간본성의 차이는 거의 없다.
- 이기심이 보편적이듯, 그와 똑같이 도덕심도 보편적이다.
- 민족이나 국가, 지역이나 풍토에 관계없이 도덕심은 대체로 협동행동, 상호신뢰행동, 측은심과 남을 도우려는 심정과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 자본시장이 커지면서 경쟁행동이 커지는데, 그에 따라 도덕심의 편차가 많아지지만 그 대신 윤리규범의 사회화도 늘어난다.

행동주의 실험기반 공평가치 의 보편성 확인	공평가치와 신뢰가 치가 인간에게 보편 적인가	방법론 4개대륙분포 소규모집단대상실험: 1. 공정성과 신뢰성은 모든 사회에서 최고값으로 여겨짐 2.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편차는 있으나 여전히 협동성이 중요하고 일상생활의 패턴으로 나타난다.		Henrich et al. 2005, "Economic ma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Behavioral experiments in 15 small-scale societies"
버추	품덕virtues의 보편 성	문헌연구: 유가,도가, 불교, 힌두교, 고대그리스철학,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8개 고대문헌분석- 용기, 정의, 인성, 절제, 지혜, 자기초월,이라는 6품덕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Dahlsgaard, Peterson, and Seligman 2005, "Shared Virtue: The Convergence of Valued Human Strengths Across Culture and History"
도덕판단 과 정당화 문제	트롤리문제와 같은 이중효과이론을 다 양한 민족들이 어떻 게 받아들이나	영국,미국,캐나다인 표본 철로인부5명이 사망하도록 기차철로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철로변경을 의도적으로 하여 타 철로에 있는 인부 1명이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 나은가의 선택(소위 트롤리 선택) 민족이나 국가에 관계없이 답변이 동일함. 즉 도덕심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경험조사.		Hauser,cushman,Young Kang-Xing Jin, and Mikhail 2007, A Dissociation Between Moral Judgements and Justifications.
도덕범주 연구	5가지 도덕지표에 대한 문화적 차이 연 구	인터넷기반 설문조사: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2,258명, 미국과 유럽인 104,893명 돌봄, 공정, 집단주의, 권위, 종교성에 관한 질문 - 결과- 동서양 차이 극히 미소.		Graham et al. 2011, Mapping the Moral Domain
협동심과 성도덕에 대한 편차 조사	나라마다 도덕가치 (종교가치)의 차이가 있는가	90개국 참여설문조사 거짓과 협동, 호모섹슈얼리티 같은 성도덕에 관한 질문- 1. 국가간, 지역간 차이는 거의 없다. 2. 성도덕에 대한 차이는 협동심도덕가치보다 약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Weeden and kurzban 2013, World Values Survey, as reported in what predicts religiosity? A multinational analysis of reproductive and cooperative morals.

<연구1> 행동주의 실험기반 공평가치의 보편성 확인: 공평가치와 신뢰가치가 인간에게 보편적인가(4개대륙분포 소규모집단대상실험)

1. 공정성과 신뢰성은 모든 사회에서 최고가치로 여겨짐

2.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편차는 있으나 여전히 협동성이 중요하고 일상생활의 패턴으로 나타난다.

Henrich et al. 2005, 'Economic ma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Behavioral experiments in 15 small-scale societies

<연구2> 품덕virtues의 보편성(문헌연구)- 유가,도가, 불교, 힌두교, 고대그리스철학,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8개 고대문헌분석-

용기, 정의, 인성, 절제, 지혜, 자기초월,이라는 6품덕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Dahlsgaard, Peterson, and Seligman 2005, "Shared Virtue: The Convergence of Valued Human Strengths Across Culture and History"

<연구3> 도덕판단과 정당화 문제: 트롤리문제와 같은 이중효과이론을 다양한 민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영국, 미국, 캐나다인 표본)

철로 인부5명이 사망하도록 기차철로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철로변경을 의도적으로 하여 타 철로에 있는 인부 1명이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 나쁜가의 선택(소위 트롤리 선택)

민족이나 국가에 관계없이 답변이 동일함. 즉 도덕심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경험조사. "

Hauser, Cushman, Young Kang-Xing Jin, and Mikhail 2007, A Dissociation Between Moral Judgements and Justifications.

<연구4> 5가지 도덕지표에 대한 문화적 차이 연구 (인터넷기반 설문조사: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2,258명, 미국과 유럽인 104,893명)

돌봄, 공정, 집단주의, 권위, 종교성에 관한 질문 - 결과- 동서양 차이 극히 미소."

Graham et al. 2011, Mapping the Moral Domain

<연구5> 협동심과 성도덕에 대한 편차조사 -나라마다 도덕가치(종교가치)의 차이가 있는가? (90개국 참여설문조사)

거짓과 협동, 호모섹슈얼리티 같은 성도덕에 관한 질문-1. 국가간, 지역간 차이는 거의 없다. 2. 성도덕에 대한 차이는 협동심도덕가치보다 약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Weeden and Kurzban 2013, World Values Survey, as reported in what predicts religiosity? A multinational analysis of reproductive and cooperative morals.

생명사상 - 밥사상

이천식천(以天食天) 동경대전

食以爲天

食以爲天
먹는 것으로

자나와서
一九八九가

바



१. १००० १००० १००० १०००
 २. १००० १००० १००० १०००
 ३. १००० १००० १००० १०००
 ४. १००० १००० १००० १०००

의식(衣食)과
동정(動靜)과
음양(陰陽)과
화주(火主)와
수주(水主)의
이치(理致)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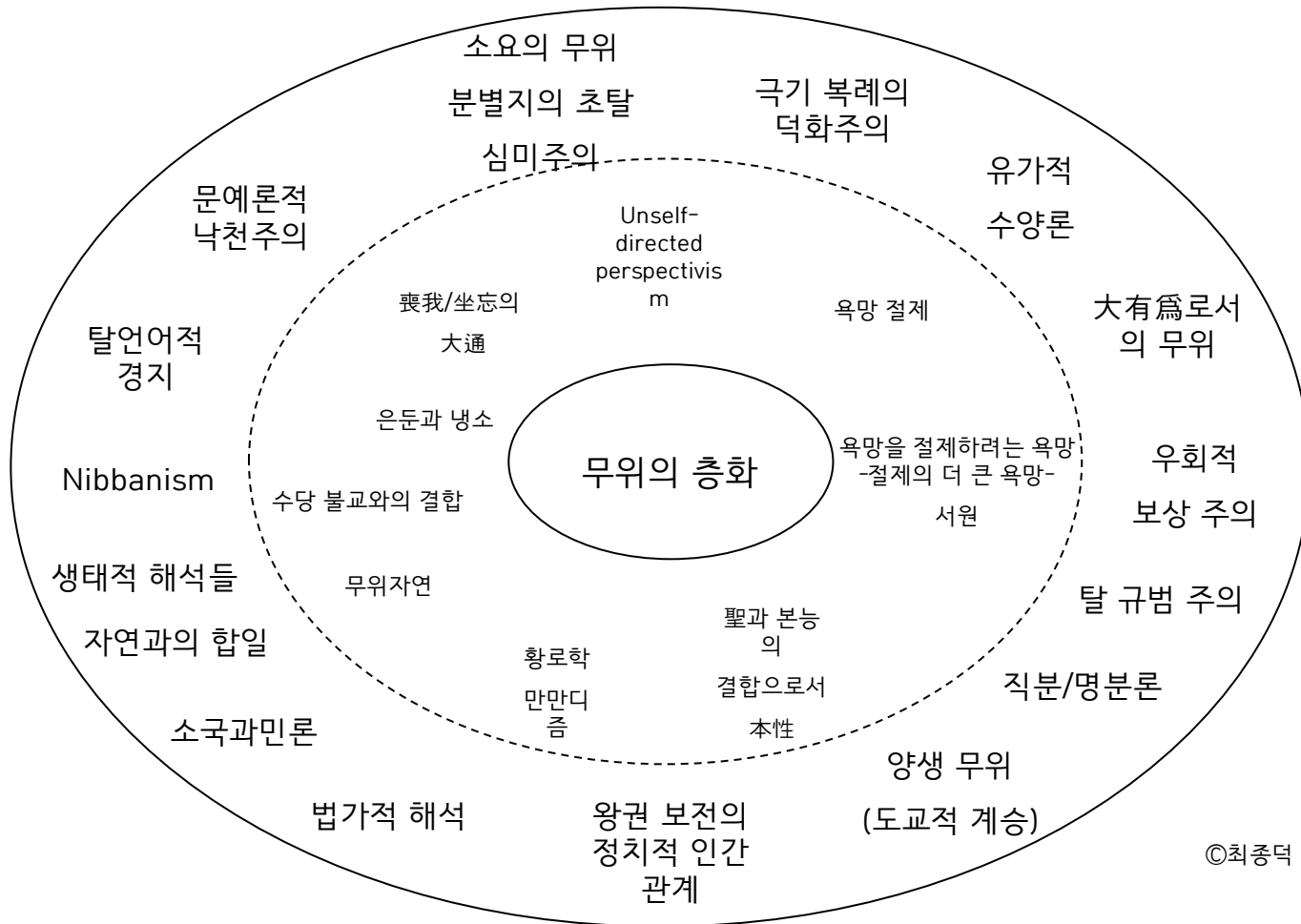
海月先生法說四付

평안도

५८७६१३०



무위를 보는 다층적 스펙트럼



생명이란 어려운 말이 아니라

- 누구나 같이,
- 더불어 함께,
- 저절로 그렇게 되어가는

평화란 어려운 말이 아니라

- 서로 나누며,
- 남을 배려하며,
- 다투기 전에 화해하는

共主是道

正木萬平

道人清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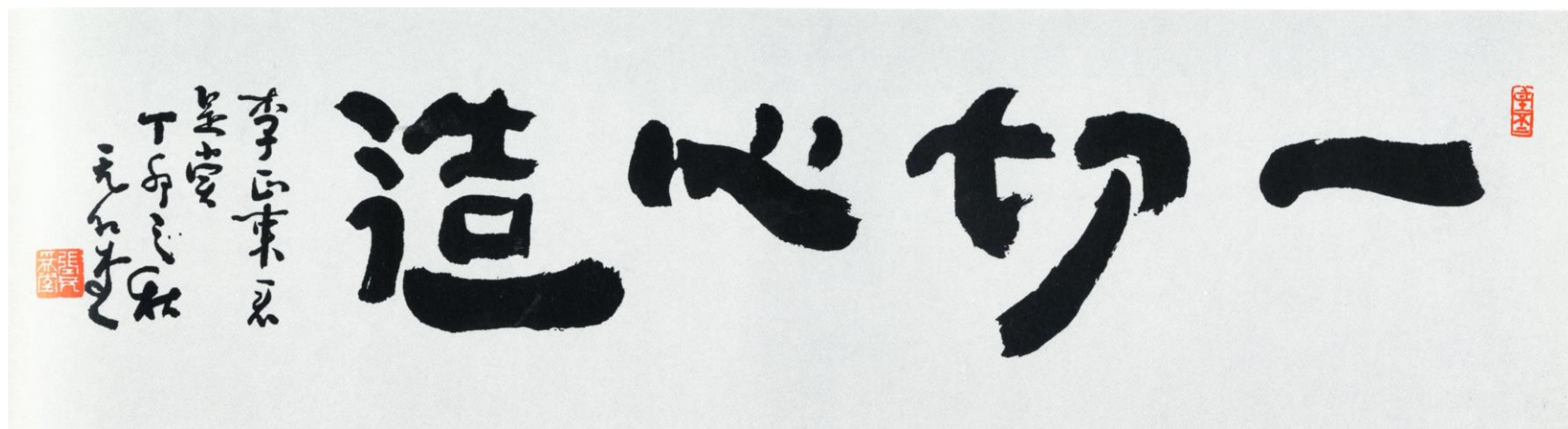
乙巳之夏

正木

敬呈



- “연자방아 돌리던 망아지는 밭에 가도 돌기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태까지의 습관, 관행을 버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지. 결국은 자신 스스로의 끊임없는 결단을 통해서 자애와 절약, 겸손을 바탕으로 전체를 보고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1988년 9월 19일, 서울 대치동 성당에서 열린 ‘한살림 월례강좌’



치인사천막약색(治人事天莫若嗇)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

알뜰함만한 것이 없다”

노자 도덕경 59장

1988년 9월 19일,
서울 대치동 성당에서 열린
‘한살림 월례강좌’

- “너구리 굴 보고 빗돈 내 쓴다”는 말이 있어요. 너구리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나 너구리 있어. 그거 잡히고 돈 좀 꺾줘” 그렇게 허황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지요.
- 1988년 9월 19일, 서울 대치동 성당에서 열린 ‘한살림 월례강좌’

장일순의 일상 속 생명/평화사상

- 생명평화사상은 사람에서 티끌까지, 만물에 접하여 서로에게 감동하여 하나가 됨에 있습니다. 네가 있어 내가 있고 그들이 있어 햇살이 있으니 이 모두가 각자의 연분으로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조한 알 안에, 혹은 평범한 이웃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속에 이미 생명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사상은 말만 어렵지 실제로는 생활 속의 행동강령입니다. 생명은 밥 한 그릇에 다 있어서, 생활 속의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姓之合

二姓之合
百福之源
始

元九



二姓之合 이 성 지 합
百福始源 백 복 시 원

迷人念佛求生

悟人自淨

其意

正木秀

平生

先生

清

賞

正木秀

平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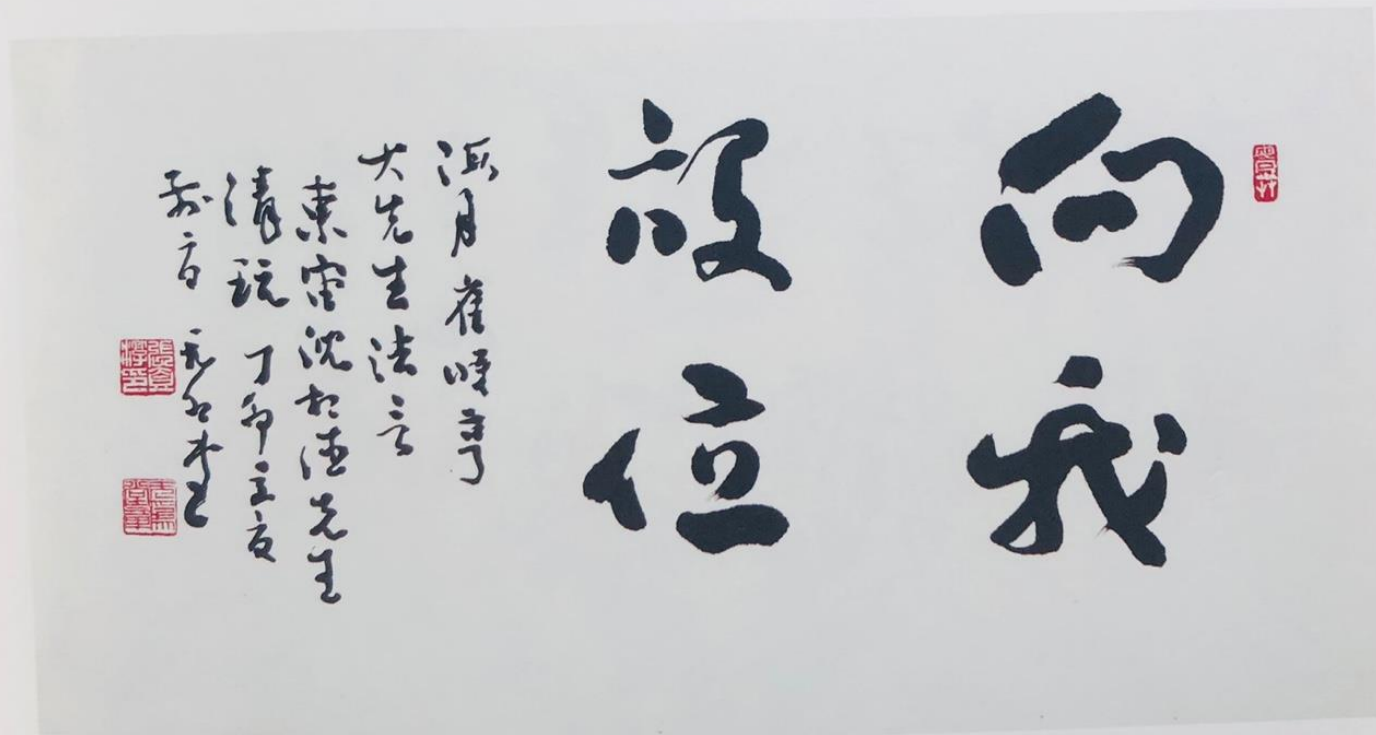


迷人念佛求生 미인념불구생
悟人自淨其意 오인자정기의

미혹한 사람은 염불로 삶을 구하고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의 마음을 정화한다

向我設位^{*}(1)

1987년



向我設位 향아설위

海月 崔時亨 大先生 法言

東宙 沈相德先生 清玩 丁卯 立夏前二日 无爲堂

자신을 섬겨라

^{*} 직역은 '나를 향해 신의를 설치한다'

蘭生幽谷

1981년



蘭生幽谷不求識賞 난생유곡불구식상

辛酉初正 青江 戲墨

朱宰鶴君 存之

난초는 깊은 골에서 피어나도 알아봐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장일순의 생명사상 요약, 일상 속의 생명

<생명>

순환- 막히지 않고 잘 돌아야 한다.

공생- 주변환경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자기조직성- 몸과 마음이 하나다

신진대사-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살수 있다.

생태-남에 대한 공감sympathy이 있어야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신비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으니,

신비주의 대신에 일상적인 삶을 중요하기 여기기

누구나 자유롭지만 서로에게 서로를 공감하는 연습하기

나 스스로 평등함을 깨닫고 그렇게 평등한 나로서 행동하기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1. 삶과 죽음이 하나라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생명을 더 생명처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인정욕구에서 벗어나 자족하기만 해도 더 없습니다.

못항암라어잠
하에으그일에
리가면령어서
니지고지나개

청강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강의했습니다>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처음 읽는 한국 현대철학』 동녘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8, 『길 위의 우리 철학』
- 이규성 2012, 『한국현대철학사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전호근 2018, 『한국철학사, 원효부터 장일순까지』. 메멘토
- 구태환 2022, “장일순 사상에 나타난 타자와의 관계맺기”. 통일인문학 89집
- 박은식(이종란 옮김) 2010, 『왕양명실기』. 한길사
- 박맹수 1986, “해월 최시형의 초기 행적과 사상”. 청계사학 3권(1986): 97-162
- 박맹수 2014, “동학계 종교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사상의 시대적 변화”. 한국종교37집: 53-87
- 이주행 2005, 『무위 유학, 왕기의 양명학』. 소나무
- 오문환 편 2005, 『수운 최제우』. 예문서원
- 신용철 2017, 『이탁오와 조선의 실학』. 탐구당
- 이탁오(김혜경옮김) 2004, 『분서』 I, II. 한길사
- 엔리에산, 주지엔구오(홍승직 옮김) 2019, 『이탁오평전』. 돌베개
- 최종덕 2016, “현대한국생명사상의 확립: 함석헌과 장일순” 『비판적 생명철학』. 당대
- 이현주 1993,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 녹색평론사 1997,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 무위당을 기리는 모임 2004,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녹색평론사
- 김삼웅 2019, 『장일순 평전』 두레출판사
- (사)무위당사람들, 『무위당 서화자료집』 1~8권
- 1988년, 1998년 무위당 서화전시회 작품도록

1부, 2부 감사합니다.

강의시간 제약으로 이야기 못하고 넘어간 ppt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강의록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받아갈 수 있습니다.

최종덕의 홈페이지 <https://philonatu.com>